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국세청, 구입 가격 이하 판매 허용...“가격 하락·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대형마트, 주류 할인으로 고객 모시기 활용 등 ‘술값 할인 경쟁’ 전망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 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많은 6000원까지 올라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음식점 술값이 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

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매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제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더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농신보 전남보증센터 보증잔액 8000억원 달성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 등 효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전남 지역보증센터는 1일 ‘8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보증센터는 2019년에 보증잔액 7000억 원을 달성한 이후 4년여 만에 8000억 원의 보증잔액을 돌파했다.

농신보는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를 통해 농신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찾아 지원하고, 청장년 귀농창업자금과 특별사료자금 등의 정책자금 보증을 꾸준히 추진해 이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광범 센터장은 “전 임직원이 농협에서 선포한 3행(청렴, 소통, 배려) 3무(사고, 갑질, 성희롱)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덕분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도네시아에서도 식지 않는 K-푸드 열풍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한 현지인들이 한국관에서 한국음식을 맛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람회장을 통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aT 제공)

2분기 온라인 쇼핑 55조원 ‘역대 최대’

여행·교통서비스 37%↑

온라인 해외직구 역대 최대

올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5조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는 11개 분기째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5조4503억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7.3%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37.3%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등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증가 추세다. 2분기 거래액은 5조9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기프트카드 등 e-쿠폰 서비스도 40.6% 늘어난 2조

319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선물 서비스 등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된 결과.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료품은 7조2685억원으로 13.0% 늘었다. 온라인 장보기가 활발해지면서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

2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3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다.

상품군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54.9%),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45.8%), 음식료품(6.7%) 등에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20.7%), 일본(13.5%), 중남미(62.5%) 등에서 구매액이 늘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천536억원으로 10.3% 줄었다. 해외 역직구는 면세점 판매 등이 줄며 11개 분기째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10.9%) 등에서, 상품별로는 화장품(-8.1%) 등에서 판매액이 감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승계 연령 55세로 인하·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부터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선된 농지연금은 승계형 상품 기준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

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또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발생

했던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아파트 초기 분양률 90% 돌파

1분기 35%→94.3% 경증

올해 2분기 광주지역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평균 71.6%로 전 분기(49.5%) 대비 22.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작년 2분기(87.7%)와 비교하면 16.1%포인트 낮았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를 집계한 비율을 말한다. 매 분기 분양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산출한다.

광주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올해 1분기 35.0%에서 94.3%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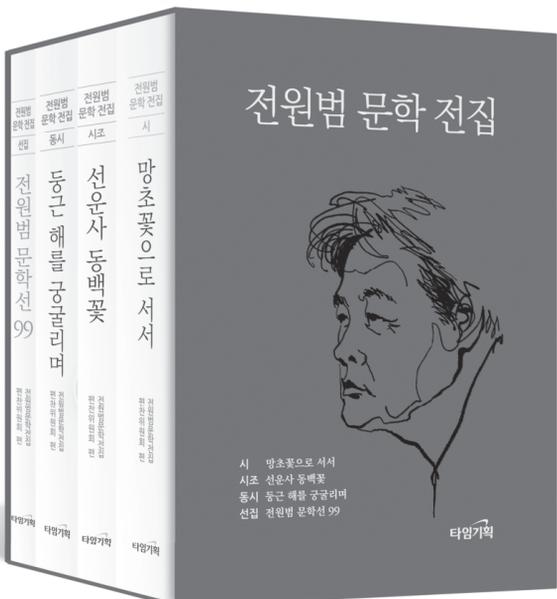
대구는 1.4%에서 28.5%로 상승했고, 부산은 69.8%에서 100.0%로 올랐다. 또 울산(3.8%→68.1%), 충북(22.8%→62.6%), 경남(50.5%→100.0%)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98.0%에서 2분기 84.0%로 하락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58.3%에서 57.0%로 소폭 하락했고, 경기도는 77.1%에서 79.9%로 상승했다.

이에 수도권은 77.3%에서 76.2%로 초기 분양률이 소폭 떨어졌다.

대전도 1분기 67.4%에서 2분기 22.2%로 45.2%포인트나 하락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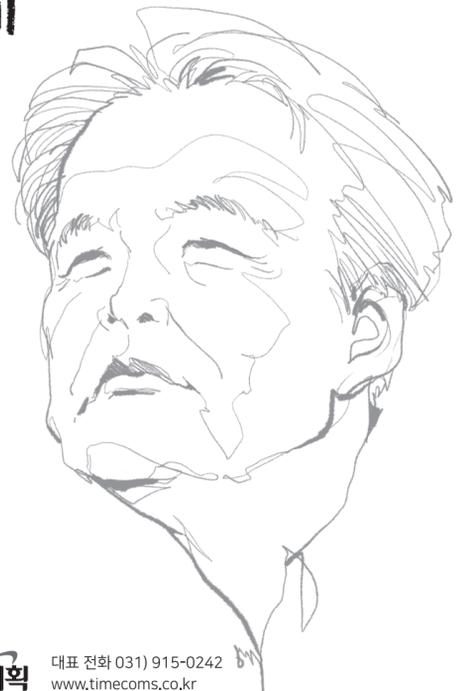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